

제 323호 · 2015년 9월 9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북유럽 항만, 항만체선과 시설이용률 저하에 직면
2. 핀란드 우정사업국, 드론을 활용한 도서지역 택배시범사업 개시
3. 파나마 운하 흘수 제한 계획 철회
4. 로테르담 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심해항 개발 계약 체결

물류시장동향

1. 인도, 타밀나두주 최남단에 34억 달러 주요 항만 건설 예정
2. UTi,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도 서비스 개시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북유럽 항만, 항만체선과 시설이용률 저하에 직면

-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와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선박 스케줄의 정시성 저하로 북유럽 항만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스케줄 정시성 결여로 항만시설 이용률은 저하되고 있으나, 항만체증이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겪고 있음
- Dynamar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유럽 17개 항만, 55개 터미널 기준 처리 물동량은 53백만TEU이며, 하역능력은 86백만TEU로서 시설이용률은 62%에 불과하나, 항만체증은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북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9,900TEU 이상 컨테이너선의 1/3이 스케줄이 지연되었으며, 입항이 지연된 선박이 다음 기항지에 집중되면서 항만의 체증이 가중됨
 - 일반적으로 항만시설의 여유 있는 공급은 항만체증을 방지하고, 시설이용률이 75% 이상인 경우 체증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박의 초대형화와 스케줄의 정시성 결여는 항만운영에 혼란을 발생시킴
- 이와 더불어 초대형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투자까지 수반되어야 함
 - 초대형선 처리를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의 구입 또는 개조, 투입 장비 대수 증가, 장비의 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보강 등에 투자가 필요 하나, 북유럽 항만은 결과적으로는 항만체증과 시설이용률 저하가 발생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 실제 18,800TEU급 인 UASC Barzan호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8,000TEU급 선박 대비 2대의 추가적인 크레인 투입이 필요함
 - 또한 초대형선박 대부분이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되고 있어 북유럽 항만의 입장에서는 화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고, 초대형선 운항 선사는 일당 6,000 박스의 하역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어 자동화 장비 및 야드 확장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 시킴
 - 실제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은 안벽에서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야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도 필요
- 북유럽 항만의 시설능력은 2014년 86백만TEU에서 2024년에는 143백만TEU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8,000TEU 이상 선박 100척 이상이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북유럽 항만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초대형선박이 대부분 기항하고 있는 부산항도 북유럽 항만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래 신규 시설 개발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 : www.lloydlist.com, 2015.9.4.

김근섭 부연구위원 (☎ 051-797-4662, gskim@kmi.re.kr)

□ 핀란드 우정사업국, 드론을 활용한 도서지역 택배시범사업 개시

- 핀란드 우정사업국인 Posti는 드론(drone)을 활용해 도서지역에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함
 - Posti는 드론을 이용하여 핀란드 헬싱키에서 4km 거리에 위치한 Suomenlinna섬에 우편물을 배송하게 됨
 - Posti는 3kg 이하의 소화물을 Next Eagle이라 불리는 무인항공시스템(drone)을 이용하여 배송 서비스를 할 계획임
 -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계 주요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를 계획 및 시범서비스 중에 있음
 - 드론 배송 서비스의 선두기업인 DHL의 경우, 드론으로 북해(North Sea)에 위치한 Juist섬에 의료품 및 긴급생필품을 배달하는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했음
 - 아마존(amazon)은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드론배송서비스 활용 계획안을 2013년도에 수립함
 - 구글(google)은 작년에 드론으로 호주지역 농부들에게 초콜렛, 가축백신 등을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함
- 드론 배송관련 규정은 다양하며, 국가별로 논의 중에 있음

- 드론기반 배송서비스를 개시할 만큼의 드론관련 규정이 체계화된 곳은 현재 없는 상황임
- 드론 비행허용 높이, 운항 경로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며, 대량의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배송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음
-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 운항관련 규정 개발에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드론기반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자료 : www.joc.com, 2015.09.04.

이건우 전문연구원 (☎ 051-797-4784, gunwoo@kmi.re.kr)

□ 파나마 운하 흘수 제한 계획 철회

- 파나마 운하 당국은 엘니뇨(El Nino)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운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밝힘
 -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 현상으로 인해 선박의 최대 흘수(Maximum draft of ships)는 9월부터 11.89m로 제한 예정이었으며, 본 흘수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운행하는 전체 선박의 약 20%로 예상되었음

<파나마 운하 전경>



자료 : www.wsj.com

<파나마 운하 지도>



자료 : www.bbc.co.uk

- 그러나 파나마 운하 당국은 운하의 가뭄이 완화되기 시작하며 상기 대형 선박에 대한 선박의 최대 흘수 제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힘
 - 파나마 운하 당국의 매니저는 엘니뇨현상에 기인하는 가뭄이 최근 운하의 강수량에 의해 완화됨에 따라 9월 8일부로 시행하고자 했던 흘수 제한 계획을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 파나마 운하 당국은 지속적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원이 되는 2개의 대형 호수의 수위를 지켜보며 향후 선박의 최대 흘수 제한 계획의 운용 및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파나마 운하 당국은 만약 흘수 제한 계획이 운용될 경우 최소 4주전에 공고한다고 밝힘
- 이에 더하여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의 닐스 에리히(Niels Erich) 대변인은 동향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만재가 아님으로 흘수가 낮은 상태로 항해하기 때문에 흘수 제한 계획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자료 : www.platts.com, 2015.8.10 / www.wsj.com, 2015.8.28.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 로테르담 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심해항 개발 계약 체결

- 로테르담 항만공사(Port of Rotterdam Authority)는 인도네시아의 항만 운영사인 인니항만공사 제1펠린도(Pelindo I)와 인도네시아 쿠알라 탄중(Kuala Tanjung) 지역의 신규 심해항(deep sea port) 건설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음
 -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 4개(PT. Pelindo I, II, III, IV)의 항만공사가 독립 · 운영중임
 - 쿠알라 탄중 항만은 말라카 해협의 메단(Medan)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1펠린도는 신규 심해항 건설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초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제1펠린도의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후 신규 심해항 개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로테르담 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심해항 개발은 인도네시아 Joko Widodo 대통령의 해양 분야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쿠알라 탄중 항만은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 중 하나로 심해항 개발이 완료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인도네시아 심해항 개발 사업 참여는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외교정책인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임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항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항만운영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전 세계 다양한 항만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2003년 오만(Oman)의 소하르항만(Port of Sohar)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2012년부터 브라질의 Porto Central 항만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5.9.1.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인도, 타밀나두주 최남단에 34억 달러 주요 항만 건설 예정

- 인도는 34억 달러를 투자해 타밀나두주 최남단에 위치한 Colachel에 주요 항만을 건설할 예정임
 - 항만 완공 시 인도의 남부 환적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이 항만 건설을 위해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PV)”가 구성될 계획임
- 더불어, 항만 건설을 위해 필요한 11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바다 매립을 통해 건설에 필요한 200 헥타르의 땅을 확보할 계획임
- 항만 건설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개발에는 10억 달러, 2,3단계에는 12억 달러씩 투자될 계획임

자료 : economictimes.indiatimes.com, 2015.9.3.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 UTi,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도 서비스 개시

- UTi Worldwide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주간 화물 철도 서비스를 공식 개시함
 - UTi의 'Iron Silk Road' 철도 서비스가 처음 개설된 곳은 중국의 하얼빈과 독일의 함부르크 구간이며 이 같은 철도 서비스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서비스보다 운송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으로 예상됨
 - 항만을 포함한 중국의 북쪽 지역과 북유럽의 다른 지역들 역시 UTi 철도 서비스를 통해 수일 내로 화물 운송이 가능해짐
 - UTi 철도 서비스는 UTi Worldwide와 전략적 파트너이며 중국의 독자적인 자동차 물류회사인 Changjiu 로지스틱스, 하얼빈 철도국 그리고 대련항만투자공사간의 합작계약의 일환임
 - 따라서 UTi와 세 개의 합작회사의 이름은 HAO 로지스틱스로 새롭게 탄생함
 - UTi 운송업 Ditlev Blicher회장은 이번에 시행한 화물 철도 서비스가 단지 UTi Iron Silk Road의 첫 연결 서비스일 뿐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 및 다른 제조물품에 필요한 로지스틱스 요소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라고 언급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8.19.

김민경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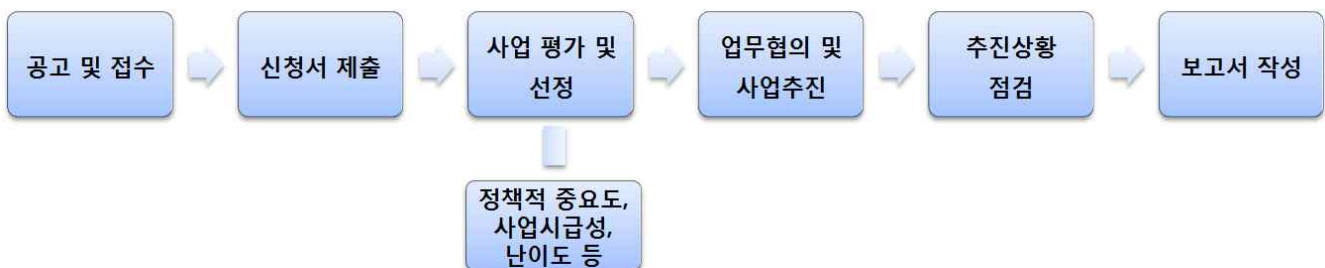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모집 공고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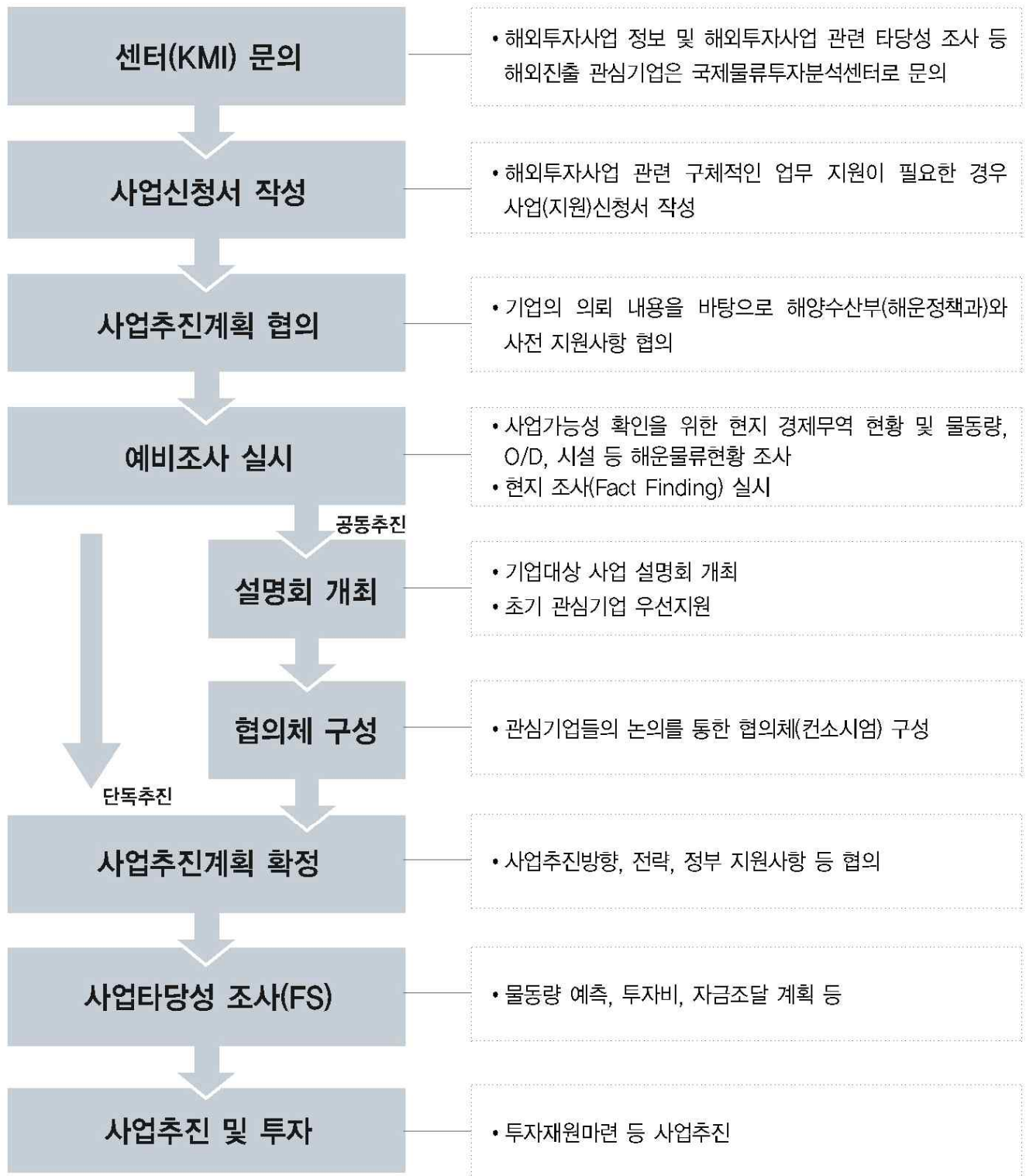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및 일정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신청기간 : 2015. 9. 14(월) 18:0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